

numbers 제 26호



주요 내용

2019. 12.13

1. '개취'를 아십니까?(개인 취향 인식)
2019 대한민국 트렌드 6 :
2. ① 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미국 바나 그룹)
② '2019년 생명표' 조사 결과 _ 2018년 기대수명
3. 넘버즈 칼럼 _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비 아흐메드 이야기"(김종호)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19 대한민국 트렌드

‘개취’를 아십니까?

‘개취’를 아십니까? ‘취존’을 아십니까?

‘개취’는 ‘개인 취향’의 줄임말이고, ‘취존’은 ‘취향 존중’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낱말이 줄임말로 나온다면 그 말은 이미 사회적으로 두루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튀지 말라는 거죠. 전통 사회에서 우리 민족은 작은 땅 덩어리에 강력한 유교적 이념 아래 있다 보니 획일성이 요구되고 다양성은 용납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개인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취’는 남이 뭐라고 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의 단면이 되었습니다. 비주류, B급 문화가 당당하게 나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26호는 ‘개취’, ‘취존’ 현상을 살펴 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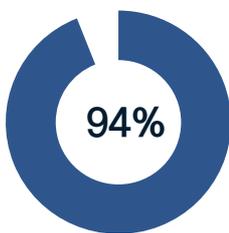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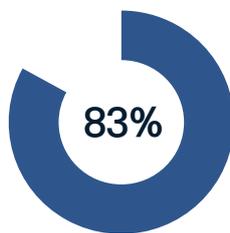
1 지금은, '개취'의 시대

- 현대는 개성의 시대! 더 이상 무색무취는 설 자리가 없다. 과거에는 조직 사회에서 개인의 취향은 되도록 죽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94%),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었으며(83%), 사회적 다양성 확대가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고(80%) 할 정도로 존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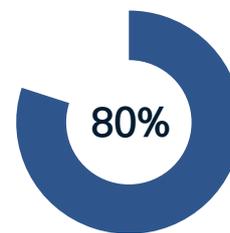
[그림] 개인 취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



요즘은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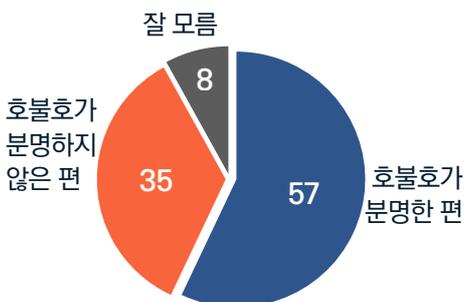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과 집단이 다양한 것은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일이다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 나의 취향만큼 다른 사람의 취향을 인정한다

- 사회적으로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자의 57%는 스스로의 취향과 성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그렇다고 자기 취향만 고집하지 않는다. 대부분(89%)이 타인의 취향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림] 자신의 호불호 성향



[그림] 타인의 취향 인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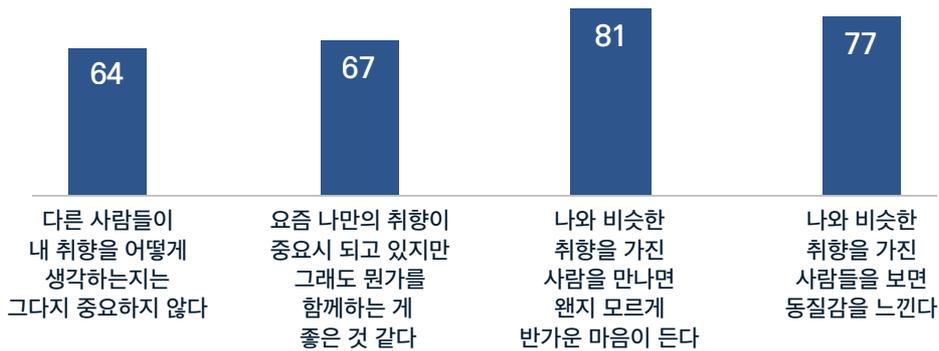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나의 취향, 공유하고 공감받고 싶다

- 개인의 취향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내 취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64%).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남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67%). 그래서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고(81%) 동질감을 느낀다(77%).

[그림] 개인 취향에 대한 심리적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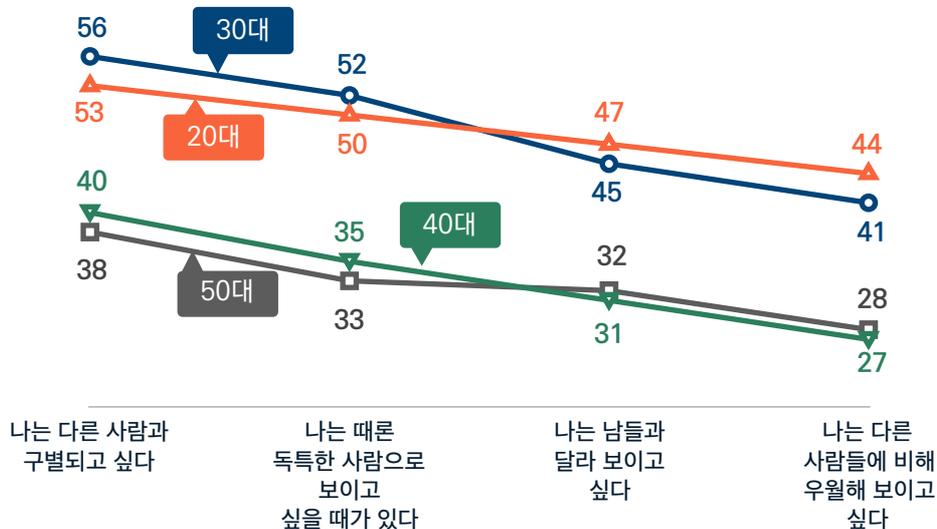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3

20-30대 젊은층, '나를 차별화하고 싶다'

- 개인 취향을 발현하고 싶은 데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취향을 드러내서 남들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는 전통적 관습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젊은 20-3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차별화 욕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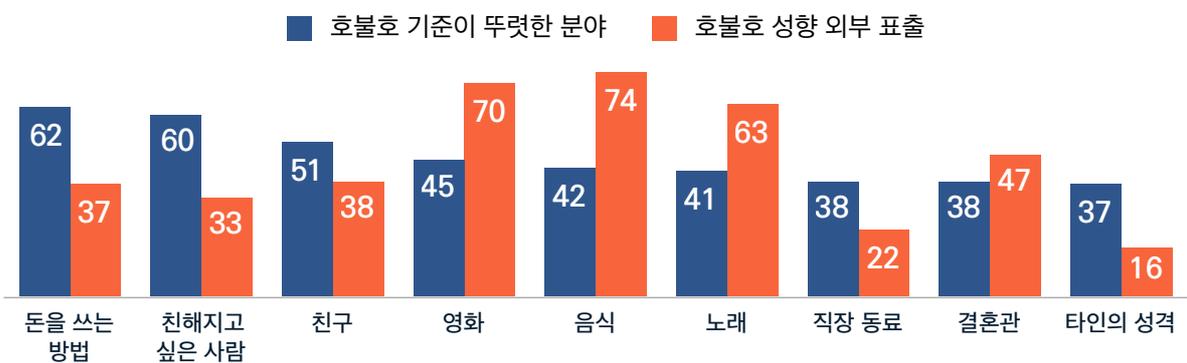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4 취향 기준 있지만,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 ‘돈을 쓰는 방법’(62%), ‘친해지고 싶은 사람’(60%), ‘친구’(51%), ‘영화’(45%), ‘음식’(42%)은 개인의 호불호가 분명한 분야이다. 하지만 개인의 호불호를 드러내는 것은 ‘영화’(70%)와 ‘음식’(74%), ‘노래’(63%)이다. 대체로 개인 기호와 스타일은 드러내지만 가치관이나 인간 관계의 호불호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림] 호불호 뚜렷한 분야 vs 호불호 성향 외부 표출(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5 개인 취향 표현이 '때로는 위험하다'

-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 기준은 있으나 그 취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이 호불호 성향을 외부로 드러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호불호 성향을 드러냈을 때 다툼의 소지를 걱정하거나(38%), 튀고 싶지 않아서(35%),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봐(33%) 걱정하고 있다.

[그림] 호불호 성향 비 노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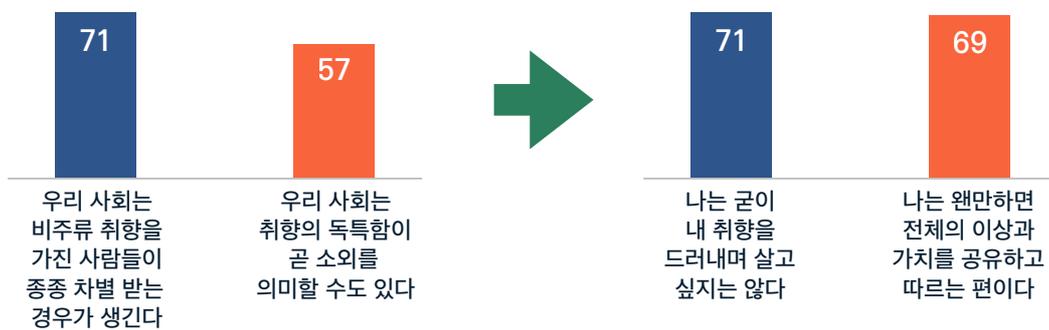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6

‘개취’의 시대이지만, 비주류 취향에 대한 사회적 벽은 높다

- 취향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비주류*** 취향까지 마음껏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 취향은 사회적 편견에 갇혀서 차별 받고(71%) 배제되며 소외 받을(57%)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주류 취향을 잘 드러내지 않고(71%)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69%).

[그림] 비주류 취향에 대한 사회적 편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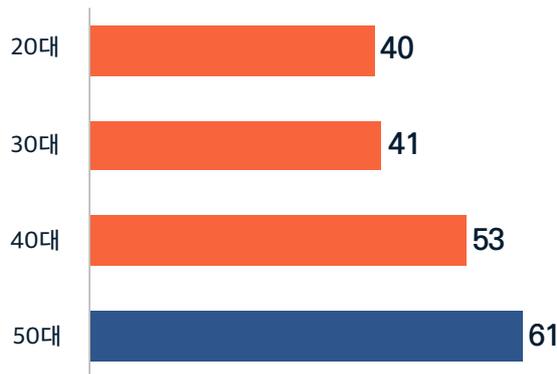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비주류'(非主流)라고 하면 대세를 이루는 큰 흐름, 즉 주류(主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심에서 벗어난 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적 예술품을 카피하여 만들어내는 키치(Kitch) 예술품, 적은 예산으로도 상업영화보다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저예산 영화인 B급 영화, 패러디 영상, 병맛코드, 마니아, 덕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성의 창구', '개성', '신선함', '전형적이지 않음'이란 긍정적 이미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림] 나는 굳이 나의 취향을 드러내며 살고 싶지는 않다 (연령별)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7 시사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주류적 생각과 다른 것을 용인하지 않고 억압해왔다. 그러나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1쪽). 개인들은 사회적 시선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드러냄으로써 자기 삶을 즐기고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1쪽).

개인 취향을 추구한다고 해서 개인이 홀로 즐기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같은 취향의 사람을 찾고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취향을 나누는 것을 원한다(1쪽). 이전에는 개인적 인연(혈연, 학연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개인 취향도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개인 취향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나이 차이, 학력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은 없고 모두 동등하다. 그래서 개인 취향이 폭 넓게 용인되는 사회는 개인이 행복해지는 사회이면서 개인들이 좀 더 평등하게 관계를 맺게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개취'가 폭 넓게 용인되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며 발전 가능한 사회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취향을 무한정 용납할 수는 없다. 소수자를 무시하거나 정의를 조롱하는 취향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유럽에서는 아무리 개인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나치를 모방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취향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개인 취향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취존'(취향 존중)이 쉽지 않은 문화적 환경에 있다.

찬양도 30-40년 전에는 찬송가만 용납했었다. 기타와 드럼을 본당에서 연주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요즘 나오는 힙합 찬송을 교회 어른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불편해할까?

교인,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양한 개인 취향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개취'에 대한 태도는 20-30대와 40-50대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4쪽),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개인 취향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배척하면 이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0-30대의 다양한 성향을 '취존'해서 이들이 교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내에서 유사 취향 사람끼리 함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적극 독려한다면 교회 조직의 근간인 구역/속회나 연령별 모임인 전도회/선교회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개취존'(개인 취향 존중)을 수용하여 더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세계 기독교 청년 교회 인식 조사(바나 그룹)
2019년, 생명표 조사 결과 _ 2018년 기대수명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전 세계 기독교 청년(18-35세)의 43%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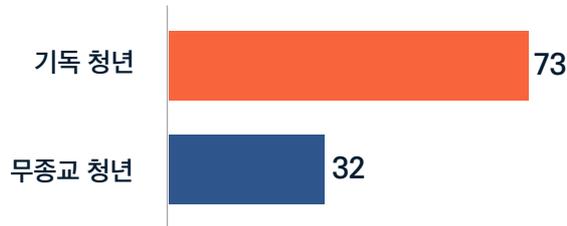
- 미국 바나 그룹이 월드비전과 함께 전 세계 25개국 청년들(18-35세)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의 43%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교회가 가난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 일반 사회보다 관심이 더 있는지'에 대해 기독교 청년의 73%, 무종교 청년 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기독교 청년 대상) (%)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림] '교회가 가난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사회보다 더 큰 관심이 있다' 인식에 대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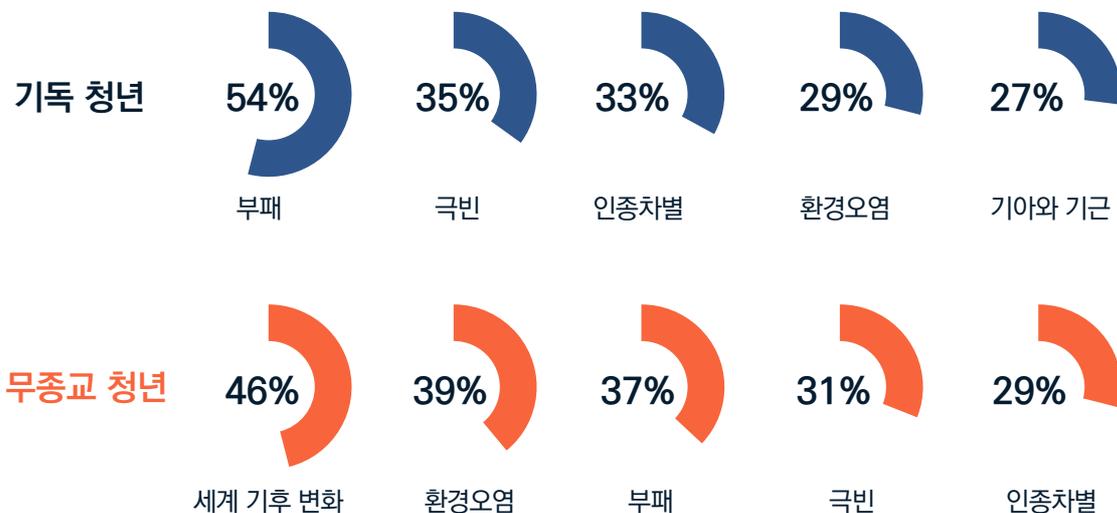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 세계적 주요 문제 중 기독교 청년 절반 이상은 '부패'에 가장 관심이 높음

- 세계 기독교 청년들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 문제 중 '부패'(5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무종교 청년은 세계 기후 변화(46%)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해, 서로간 인식 차이가 나타남

[그림]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상위 5위,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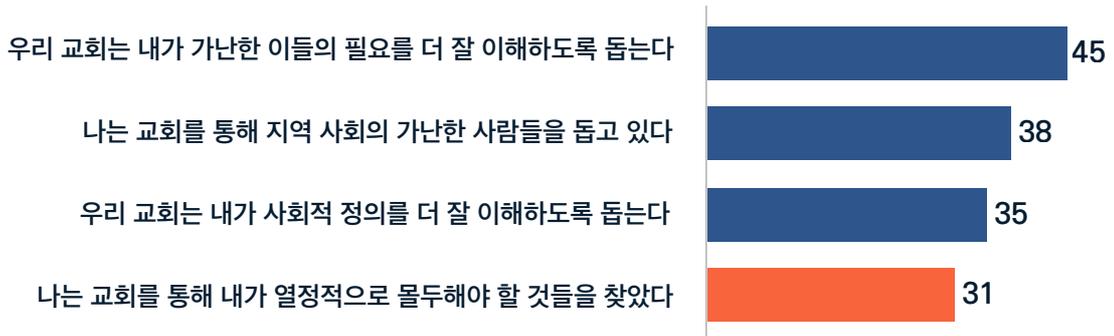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 세계 기독 청년, '나는 교회를 통해 내가 열정적으로 몰두해야 할 것들을 찾았다' 31%

- 세계 기독 청년은 교회로부터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는 데(45%), 사회적 정의를 더 잘 이해하는 데(35%) 도움을 받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 열정적으로 몰두할 이슈들을 찾았다(31%)고 응답함

[그림] 항목별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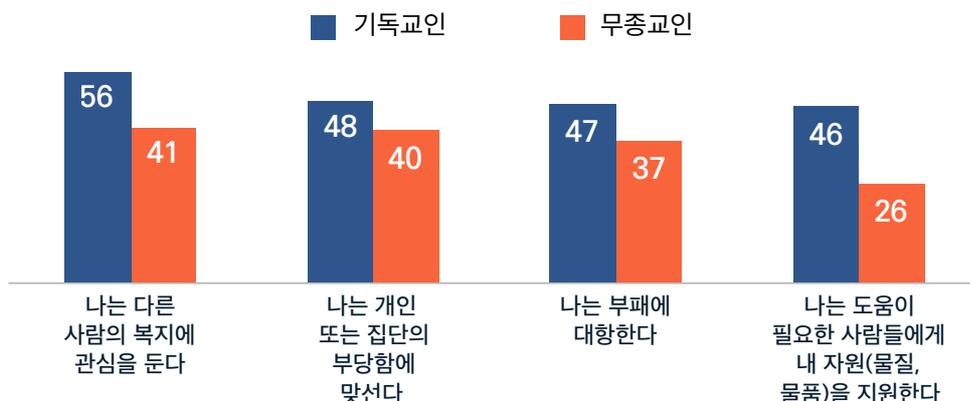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 세계 기독 청년, 자신의 믿음이 여러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 '자신의 믿음이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세계 기독 청년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타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게 되고(56%),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56%), 개인/집단의 부당함에 맞선다고(48%) 응답함. 이와 같은 인식은 무종교 청년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임

[그림] 나의 믿음 때문에 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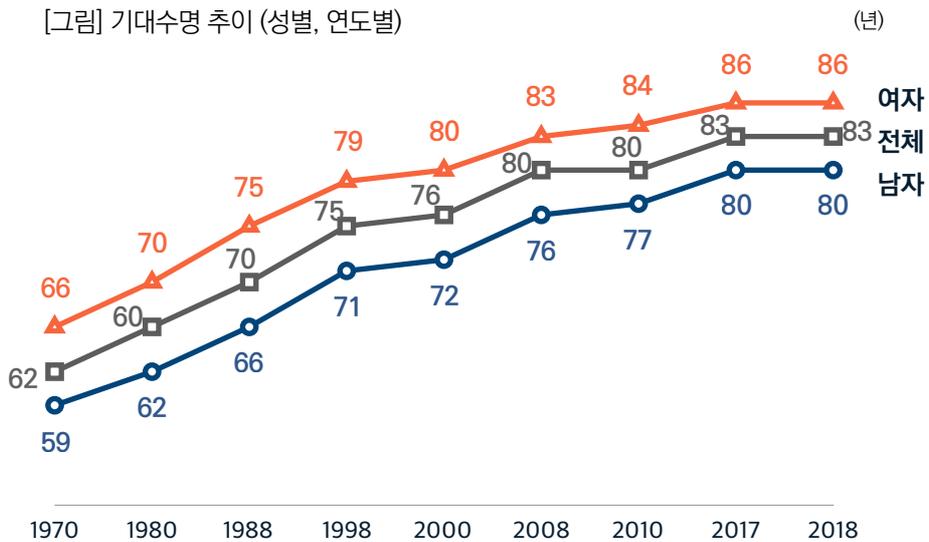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2

한국인의 기대수명, 1세대 동안 13년 증가함 (1988년 70세 → 2018년 83세)

- 우리 국민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 1988년 70세, 2018년 83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로, 남자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80세가 됨
- 남녀 간 차이는 6.0년으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임

[그림] 기대수명 추이 (성별, 연도별)



*자료 출처 : 통계청, 각 연도별 생명표 및 '2018년 생명표', 2019.12.04.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OECD 국가 중 남자는 스위스, 여자는 일본이 가장 기대수명이 높음

- 세계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스위스가 가장 높고, 여자는 일본이 가장 높음
- 전체적으로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알려져 있음

[표] OECD 국가 기대수명

(세)

남 자		여 자	
1위	스위스(81.6세)	1위	일본(87.3세)
2위	일본(81.1세)	2위	스페인(86.1세)
	아이슬란드(81.1세)	3위	대한민국(85.7세)
15위	대한민국 (79.7세)		
OECD 평균	78.1세	OECD 평균	83.4세

*자료 출처 : 통계청, 각 연도별 생명표 및 '2018년 생명표', 2019.12.04.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한국인은 기대수명 83년 중 19년은 아파서 보내고, 64년을 건강한 상태로 보냄**

- 기대수명 중 유병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 16년, 여자 21년, 평균 19년이며,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남자 64년, 여자 65년, 평균 64년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 인생 중 건강한 상태 기간은 남자 80%, 여자 76%, 평균 78%임

[그림] 유병 기간 제외 기대 수명 (년)



*자료 출처 : 통계청, 각 년도별 생명표 및 '2018년 생명표', 2019.12.04.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
[미국도 이념 갈등으로 나라가 두 쪽! 분노와 증오의 정치적 분위기!](#)
세계일보_2019.12.07
 “美 보수·진보 진영 극단적 대결.. 정치판 ‘분노의 물결’ 넘실”
- ✍
[\(영상 통계\) 전 세계 백만장자 통계, 미국과 한국의 백만장자 비교](#)
중앙일보_2019.12.11
 “[영상]韓인구만큼 많은 백만장자…미국인 40% 한국인 1.6%”
- ✍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조선비즈_2019.12.10
 “기업도 ‘부익부 빈익빈’…대기업 영업이익, 中企의 916배”
- ✍
[학업도 안하고 일도 안하는 청년 니트족 5명 중 1명](#)
연합뉴스_2019.12.05
 “청년 5명 중 1명, 학업도 일도 훈련도 없다”
- ✍
[아르바이트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 노인](#)
국민일보_2019.12.08
 “황혼 알바’ 100만명 시대…파트타임 105만명이 60세 이상”

스토리가 있는 기사

- ✍
[어느 판사가 동반자살 미수 피고인 2명에게 쓴 편지](#)
국민일보_2019.12.08
 “[아직 살만한 세상] “삶이 애달파도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 ✍
[부모와 교사가 바꾸는 한국 교육](#)
조선일보_2019.12.12
 “우리 애만 잘하면 돼? 그러다 한국 교육 망합니다”
- ✍
[연말의 인간관계](#)
동아일보_2019.12.07
 “연말을 맞는 사회인의 자세[오늘과 내일/문권모]”
- ✍
[“희망을 가지세요” 라는 말과 사회적 약자](#)
오마이뉴스_2019.12.08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말의 모욕”

Numbers 칼럼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비 아흐메드 이야기

김종호

IFES 동아시아지역 부총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프리카 출신의 복음주의 신앙인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는 현재 에티오피아의 총리로 100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만 43세의 젊은 정치인이 집권 18개월 만에 평화와 화해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꽤나 파격적인 일이다. 그가 추천되던 올해 초는 그의 집권 9개월 만이었으니 그의 공로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오로모(Oromo) 무슬림 아버지와 암하라(Amhara) 기독교인 엄마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오로모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암하라인이기도 하다. 이런 개인적인 배경이 그로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 그는 에티오피아 연방공화국의 제4대 총리로 작년 4월 2일 전격 취임했고, 순복음 교회에 속한 신실한 교인이다. 그는 16세 나이에 군에 입대하였고, 정부의 여러 보직을 수행하며 공부를 병행했다. 그는 군대에 있는 동안 컴퓨터공학 학사를 마쳤고, 이후 런던의 그리니치 대학과 아디스아바바의 국제리더십센터의 협력 과정으로 변화의 리더십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에는 아디스아바바대학 평화안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졸업 이후 에티오피아 IVF(그 나라 명칭은 EvaSUE)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강의와 훈련을 맡기도 했고, 2017년에는 에티오피아 IVF 전국리더수련회에서 주 강사 중 한 명으로 섬겼다. 당시 그는 과기부 장관이었다. 젊은이들을 향한 열정이 많은 지도자로서 학생 사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격려와 귀감이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총리직에 취임하던 당시는 하일레마리암 데살렘 전 총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총리직을 돌연 사임하였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그는 취임 후 개각을 단행하고 신속하게 민심을 안정시키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계엄령을 해제하며 국가를 정상화시켰다. 또한 인터넷과 방송을 통제하던 조치도 해제하여 사람들의 언론을 열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알려진 이웃나라 에리트리아와 오랜 군사, 외교적 긴장 관계와 영토 분쟁을 해소하며 닫혔던 국경을 열고 양국 간 화해를 이루는 놀라운 성과도 이루었다.

그의 평화의 리더십은 에티오피아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빛이 난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그를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에 추천했던 영국의 Awol K Allo 교수는 추천사에 이렇게 썼다.

“경제, 정치적 폭발 직전에 있던 1억 8백만 인구의 국가를 구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 그리고 그의 평화, 관용, 사랑, 이해의 메시지는 에티오피아를 넘어 널리 퍼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여러 민족의 연정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늘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상으로는 아비 총리의 오로모인이 더 많지만, 늘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암하라인이 주도권을 잡고 차별과 탄압을 해왔다. 에티오피아 최초로 오로모인 총리가 나왔는데, 그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정적으로 알려진 안다르가추 치게를 비롯한 수천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

고 화해의 물꼬를 텃다. 또한 자국과 주변 지역의 평화 구축을 국정 목표로 삼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안정, 평화, 번영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평화, 용서, 화해, 일치, 단합, 이해 등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 연방 정부기구, 심지어 안보, 정보기관까지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도록 감독하는 장관급의 인사를 단행하여 평화가 국정 지표가 되도록 하였다.

아직도 에티오피아의 평화, 안정, 번영의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인다. 그는 작년 6월에는 암살의 고비를 넘겼고, 내년에는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전히 정적들은 그를 노리고 있고 언제든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산재해 있다. 노벨위원회가 집권 초기에 그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것은 단기간에 보여준 공로를 인정한 의미도 있지만, 향후 그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 평화 체제가 정착되길 기대하는 의도도 있다. 그에게는 평화의 길을 달리라는 박차로 해석되길 기대한다.

그의 취임과 이후 행보를 통해 남북 대치를 70년 넘게 이어온 한반도의 현실을 반성해 본다. 그는 복음주의자로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평화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신앙인들이 화해에 앞장서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가? 남북 관계의 긴장을 풀고 대화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이 가져온 긴장을 해소하고, 분단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반목과 분열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논리, 진영 싸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우리 민족이 이념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보여준 리더십처럼, 한국 교회가 길러내고 복음주의 학생운동이 길러낸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께 구한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대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www.mhdata.or.kr)에 가입하시면, 위 자료를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가능).

+ 과거 자료는 홈페이지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